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購讀料 壹部(朝夕刊)金五錢 [illegible] 一個月先金壹圓 [illegible]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拾四字 一行壹圓 [illegible] 指定料 [illegible]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 [illegible]

社說

統治群의誘惑
中央朝鮮協會의成立을듣고

一

『만일 英國國民이 一千八百八十六年 글랏스톤의 最初自治法案을 議會에 提出한 에에 그를 許할 雅量을 가젓드들 今日의 愛蘭自由國과가튼 事實上의 獨立國을 맨들을 必要는 업섯겟지』 이는 前者『朝鮮統治의 根本義』를 論하야 朝鮮人 灰色分子들의 蹶出馬함을 催促하든 副島道正氏의 朝鮮自治論을 提出한 魂膽을 表明한바이다 氏가 自己의 主宰하는 兩新聞에 三日間에 써치어 朝鮮의 自治論을 說明하되 抑揚反覆하야 아모지안함이 업섯고 結局은 아즉 自治이고무엇이고 말할 境遇가 아니라』고 斷言하엿섯다 이 點에 關하야는 朝鮮人大衆에 對한 彼等統治群의 가지는바 步調攪亂策인것을 摘拔하여둔바어니와 이제 氏는 다시 日本의 一有力한 雜誌인『外交時報』에 또한 同一한 趣意의 論文을 揭載하야 頭書한바와가튼 言論을 表示하엿다

二

副島氏의 言論은 本報에서 이미 詳細批判한바어니와 이와 呼應하야 새로히 發生된것은 日本의 知名하는 人物들로 因하야 組織된『中央朝鮮協會』및 그 趣旨의 宣傳이다 本部를 東京에 支部를 大阪및京城의 各都市에 두고 公爵山縣伊三郞을 會長으로 淸浦奎吾 澁澤榮一、野田卯太郞、井上準之助、宇佐美勝夫、關屋貞三郞 阿部充家外十餘人을 顧問或理事로써 推立한 同會는 다만 그人物系統으로 보더라도 그 趣意의 一斑을 忖度할수잇스려니와 所謂『重大한 創立의 意義』라는 所謂書下에『朝鮮에 關한 諸般의 事項을 調査하고 그 方策을 攻究하야 써 朝鮮의 健全한 發達을 助成함을』目的으로 하는 『有力한 團體』인것을 自稱하고『同志를 모으며 目的을 遂行함에 努力』한다는것을 宣布하엿다 이것이 또한 모다 彼等의『深謀遠慮』에서 나온 어떠한 術策으로 因한것인 것은 勿論이다

三

『朝鮮最近의 情勢는 그의 前途에 對하야 吾人으로 深甚한 考慮를 拂케함이 잇다』함이 그들로 同團體를 組織케한 動機인것을 表明하엿다 『朝野가 한가지로 모아 朝鮮의 政治上 社會上 또 經濟上의 進步發達을 助成하고 또『內鮮人의 融和共榮을 實現함을 期함』이라고 宣言하엿다 이『朝野가 한가지로 모아』『內鮮人의 融和共榮』을 實現하기를 期하고 써『朝鮮의 健全한 發達을 助成』한다는『有力한 團體』의 出現이 그 魂膽이 那邊에 잇는것은 吾人의 說明함을 기다리지 안코서도 一般의 讀者는 발서 明白히 了得할바이다 다만 彼等이 內外東西에서 이러한 種類의 計劃的인 陰謀를 持續하고 잇는것은 매우 注目할 일이다

四

彼等의 統治群들은 朝鮮人의『無產階級勢力의 擡頭』를 무엇보다도 憂慮함을 暗示하고 또는『無產階級的 勢力이 民族的 色彩를 濃厚』히 할것을 또 憂慮한다 그리고 勞働黨 또는 無產黨보다도 旣成政黨의 過激化를 더욱『두려워함』 事態로 보는것이 그의 日本政局에 對한 態度이라 彼等이 그의 內國에 잇서서 온갓의 法禁으로서 社會의 必然한 進潮를 拘束하고 朝鮮人에 向하야 各種의 手段으로 誘惑의 魔手를 써는것이 곳 朝鮮人의 一路直進하는 最後的인 要求로부터 彷徨케하야 그들의 後退를 試케한 後 에게 永久한 隸屬의 멍에를 메이게 하고저 함인것은 이제 重言할 必要치 안는다

五

統治群의 誘惑의 魔手는 到處에서 發動하고 이에 因한 機會主義者들의 右傾的 亂舞가 暗暗裡에 助長되는바 잇는것은 世間의 識者가 이미 그 概要를 料得한바 잇다 한다 澤柳政太郞 高瀨[illegible] 및 頭本元貞等 日本知名의 人物들이 副島氏와 함께 外洋에 出入하며 同一한 誘惑의 言論을 弄함과 및 그들 評하는 者中에 오히려 欣然히 計劃하고저 함이 잇는것은 또한 識者의 同聲하는 바이다 이리하야 朝鮮人의 政治的 分野가 早晚에 一大變動이 잇슬것을 豫期케하면서도 아즉 明白한 表示를 보지 못하는것은 곳 機會主義者들의 觀望의 持續이 오히려 大膽한 決定을 보지 못함에 因함이다 그러나 이 中央朝鮮協會의 成立 및 그 趣意의 發布가 큰것은 곳 統治群의 誘惑이 오직 그 呼應者의 出現을 기다려 비로소 그치고저 함을 因함이니다 吾人은 明目持重하야 灰色分子의 準備한바 鋪設을 一蹴키를 期하는 바이다

政友第一黨計劃도 水泡에歸할模樣이라고
◇本黨의極力防壓으로

(東京電) 政友同交兩派合同은 職日中에 實現되리라고 傳하나 同交會內에는 二潮流가 잇서서 此際에 合同의 可否가 未決되고 一方政友會는 兩派合同을 機會로 第一黨組織을 施行하야 憲政會를 壓倒코저 한다는데 憲政會의 百六十四名에 對하야 政友會의 百三十五名과 同交會의 二十六名을 倂하야 百六十一名으로 되엿으로 兩派合同을 機會로 無所屬으로부터 三名以上을 拉致하다고 策動을 하는 中인데 此에 又는 對하야 本黨은 防壓에 努力中임으로 政友會의 第一黨計劃은 水泡에 歸할 模樣이라더라

田中男對乾의 三百萬圓事件再燃
其內容이甚히醜雜

(東京電) 政界는 勿論社會一般의 耳目을 聳動케하든 田中政友會總裁에 關한 三百萬圓事件은 一時寂然하던中 四日衆議院本會議에서 土屋代議士의 摘發로 又復大問題를 惹起함에 至하엿는데 右事件의 眞相을 確聞하건대 田中男의 會見한 神戶의 乾新兵衛氏는 船舶으로 致富하야 高利貸金業으로 變한後 北海道小樽의 板谷、大阪의 岸本等과 日本에 在한 三大高利貸金業者란 稱을 듯는 터인바 該方面에서는 相當히 著名한 터로 田中男의 政黨加入에 依하야 政見의 異動을 期待하던中 田中男도 軍資金調達의 必要를 感하야 其間乾의 婿山本某의 斡旋으로 遂히 其時田乾兩氏의 會見이 된것인데 其時田中男의 請한바는 三百萬圓의 無擔保云云事이엇스나 乾은 이것을 快諾하고 表面은 無條件無擔保로 提供키로 되야 其後數回에 亘하야 現金百七十萬圓의 授受가 잇섯는데 表面에 無條件提供은 即寄附的行爲는 乾과 如한 高利貸金業者가 快諾한 裏面에는 總히 山本某가 잇서 한번 政權이 政友會에 移動하야 田中男의 手中에 歸하면 山本은 其功에 依하야 或種의 利權을 手中에 收할 公約이 잇슬뿐아니라 乾에게 對하야서는 貴族院勅選議員의 奏請을 함과 同時에 運動만 조흐면 將來에 授爵을 어드는 斡旋의 豫約까지도 山本을 通하야 成立한 事가 確實히 判明되엿는데 右와 如한 條件은 元來證文의 交換이 無한것이요 全然田中男個人에 對한 信用으로부터 出發하야 軍用金을 提供한것임으로 政友會의 議會解散準備는 이 點에서 生起한 듯한즉 今後此等의 眞相暴露와 共히 事件變展을 볼 形勢이더라

『뿌다진』公使의 暴行事件、日露議定書締結等 諸條約과의 關係、滿蒙에 在한 日本人民의 權利擁護와 臺灣人에 對한 憲法上의 權利、現內閣組織任命에 對한 形式上의 疑議를 一時間餘에 亘하야 論述하매 此에 對하야
▲若槻首相 大命拜受 新內閣組織手續에 何等의 違法이 無함을 詳述한 後
▲幣原外相 日本人民으로 滿洲에 在한 者는 皆日本의 法律下에 服從하고 잇다고 答하엿스며
▲花井氏 尙히 滿洲에 잇는 法令이 完全히 行하여지지 못함을 述하야 憲法的刑法과 民法裁判所를 設定하야 日本人民의 權利를 一層鞏固히 하라고 論하고
▲池田長康男 貴族院議員互選規則과 院令의 委任命令에 對하야 若槻首相과 問答을 하고 正午에 休憩

若槻首相 床次氏邸訪問
憲政會總裁로서

(東京電) 若槻首相은 五日午前十一時 麻布의 床次本黨總裁邸를 訪問하고 憲政會總裁로서 就任人事를 마친뒤 會談三十分에 辭去하엿다더라

貴族院本會議
五日午前十時에

(東京電) 五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十五分에 開議하고 質問을 續行하다
▲花井卓藏氏(交) 刑事被告人의 不在投票를 認許치 안는 理由

國有鐵道
一期計劃內容

大村鐵道局長이 懷抱한 朝鮮國有鐵道豫定線은 產業上將來特히 國防上의 數設할 諸線中 比較的急을 要하는것은 次와 如하다고 言明하엿다
咸北國境線(會寧雄基間—)
滿浦鎭線 順川江界間—
로則所謂二億一千萬數設計劃의 根幹이 되는것인데 北鮮의 林產物 金鐵、石炭、鐵道等을 搬出하야 將來朝鮮의 工業上基礎를 作코자 하는 純然한 產業線인데 所謂第一期計劃은 右兩線外에 左의 諸線을 舍合하엿다
東海岸線(釜山浦項間 二六哩 浦項元山間 二九六)
慶南朝鮮線(馬山河東間 元哩 河東全州間 二六 全州裡里間 一六)
右는 大邱地方의 要望하는 邱全鐵道이 遠히 包含되지 안하엿는데 總督府의 方針으로는 旣設京釜線을 本線으로 培養線인 忠北慶東線 京春等의 各私鐵이 잇스며 此等脊髓山脈以西의 產業開發에 任하야 一方國營으로써 嶺南朝鮮線及東海岸線을 完成하야 人口稠密하고 比較的餘地가 無한 地方의 資源을 開發함에 依하야 民間鐵道網의 自然的發展에 委하야 漸次鐵道網을 完成코자 하는것인데 嶺南朝鮮線인 河東으로부터 順天光陽 順天으로도부터 求禮를 經하는가 北에 向하거나 光州에 至할가 하는 何等未定인데 此는 大局으로 본 朝鮮鐵道網의 根幹이 此以外에 無하다 함이러라

開浦勞働親睦會
肉體的勞働者로만組織

慶北醴泉郡開浦面地方에 잇는 勞働者諸氏는 互相團合機關을 組織코저 去月二十六日 開浦勞働者親睦會發起會를 마치고 準備委員十人을 選定하야 創立總會에 對한 諸般準備를 한다함은 旣報한바 去二日開浦面京津洞西部少年會館內에서 六十餘名이 모혀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議長朴定祥氏司會下에 任員은 發起會에서 被選된 準備委員十人을 執行委員으로 選定하고 左記六人을 추選한 後 閉會하얏다는데 會員은 單純한 肉體勞働者로만 組織되엿다더라
◇委員
執行委員 朴洛源 朴大京 韓一洪 池炳技 黃守星 朴泰祥
發會式에 警官의 注意로 創立總會를 마치고 約十九間休憩한後 演會式을 擧行한바 來賓으로부터 金永熙 權內南豊山小作人會 李用萬 金相趙諸氏의 祝辭와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얏다더라(醴泉)

執行委員會

開浦勞働者親睦會에서는 去二日午後十二時頃 同會館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와 如히 常務委員選定及決議事項이 잇섯다더라
◇決議
一、勞働夜學을 設置할것
一、會員募集에 關한件
◇委員
常務執行委員 委員長朴定祥 委員金輝俊 朴東鎬 金昌鎭 金寔演 朴孟三 韓一昶(醴泉)

永興靑年 郡聯盟創立
年齡制限은 十五至廿五

第一日 永興靑年聯盟創立大會는 去三日永興靑年會館內에 開催하엿는데 左記十七團體代議員四十餘名이 出席하야 役員을 選擧하고 翌日繼續開會키로 하엿다
◇參加團體
龍興靑年黨 舳寧靑年會 新興靑年會 永光團 唯一靑年會 頭山靑年聯盟 永新靑年會 靑年農民會 地方發展會 攝灘鍊光團 北樹會 永興靑年會 廣興靑年會 旺場相助會 永進靑年會
◇委員
執行委員 金元鎬 朴嶒絡 金平主 禹日埔 張東弼 金鏵洪 金正洪 梁宗源 崔共主 朴致燮 尹金龍 檢查委員 金炳燮 金鳳經 韓道烈 嚴範哲
第二日 去四日前記場所에서 繼續開會하엿는데 各地로 온 祝電祝文朗讀이 잇슨後 宣言綱領及左記의 決議事項을 通過하얏고 年齡制限關係로 一時論議가 紛然하얏다더라
◇綱領
一、우리는 智的向上과 實力養成을 圖함
一、우리는 正義로서 社會來公을 圖함
◇決議
一、靑年運動方向은 單一히 無產靑年運動으로 할
一、靑年團體組織은 內外兩部門으로 하야 內部는 訓練의 範圍로 外部는 宣傳의 範圍로 하기로 할
一、永興各地方에 勞農運動團體를 닐우키는 同時 積極的으로 後援할事
一、女性運動團體를 速히 組織되도록 後援할事
一、少年運動을 積極的後援할事
一、衡平運動을 積極的後援할事
一、異流團體를 積極的으로 撲滅할事
一、靑年年齡은 滿十五歲以上으로 滿二十五歲外지로 制限할事
一、本聯盟은 咸南道總聯盟에 加入할事
一、其他는 執行委員에 一任할事(永興)

放送局發起人總會

京城放送局創立委員會에서는 財界有力者及知名士를 發起人으로 하기로 決하고 勸告中이던바 豫期以上의 贊成을 得하야 九十九名의 多數에 達하얏슴으로 十五日午後四時 朝鮮『호텔』에 第一回發起人總會를 開催하고 會員募集資金集成等의 實行方法에 就하야 協議하기로 되얏는데 當日은 府內各新聞社의『라듸오』擔當記者의 列席도 求하야 意見의 交換을 圖할 터이라더라

尙州讀書會
創立總會

慶北尙州郡有志靑年들은 新思想을 硏究할 目的으로 讀書會를 發起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其間創立總會에 關한 모든 準備를 다 마치고 去月三十日 尙州靑年會館內에서 創立總會를 開하고 宣言綱領及規約等을 通過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圖書購入의 目的으로 會人에게 一任할것
一、發會式은 二月二十八日下午七時 同會館에서 行할것
◇執行委員
姜鎔 朴武生 朴仁根 沈黨 朴東熙 金海涉 朴東翰 申容均(尙州)

奉天僑居同胞
相扶會員招待와 重要案件의討議

去月二十九日 奉天有志諸氏와 相扶會幹部一同이 西塔靑年會館에 會合하야 過般張郭戰亂時 避亂同胞들을 爲하야 募集된 義捐金收支의 決算을 通過하고 이어 今冬에 相扶會員들이 賭博禁止에 繼續活動한 結果 風紀肅淸하고 常習賭博의 惡分子를 掃除하야 功勞가 不少하다 하야 慰勞키로 決議하고 去二日北市場公榮飯店에서 一般市民主催로 慰勞會를 開하고 有志及相扶會執行部委員三十三人이 모혀 매우 盛況이엿는데 林漢龍氏의 相扶會事業擴張의 意見과 姜重遠氏의 經濟機關設置의 意見과 羅景錫氏의 現在우리의 民會가 日本人居留民會에 附屬되어 잇는것은 各方으로 보아 弊害가 不少한즉 相扶會를 民會獨立에 對한 有力團體로 만들자는 等의 意見陳述이 잇서 奉天社會의 重要한 案件이 됨으로 來土曜日(七日)西塔靑年會館에 會合하야 繼續討議하기로 되엿다더라(奉天)

會長 趙鍾培 副會長 金基俊 [illegible] (仁川)

燕岐金組組長會

忠南燕岐金融組合에서는 去一月三十一日 組合長林寅馨氏司會로 同組合組長會를 開催한바 一月末現在組合員數가 八百五十六人 出資口數가 一千十六口 各種預金이 十萬二千四百六十三圓 借入金이 四萬圓으로 業務를 進行하는 中인대 業務發展에 따라 今年度實行할 事項을 左와 如히 協議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組合長推薦의件 二、出資口數增加의件 三、組合員貯金獎勵의件 四、延滯貸付金整理의件 五、組合員事故通知의件(鳥致院)

北靑少年
聯合會發起

北靑郡에는 近來에 少年會가 各處에 蹶興하야 少年運動의 熱이 자못 熾盛하던바 老德少年會의 發議로 去二日北靑少年會聯合會發起會를 北靑靑年會館內에 開하고 新昌 安谷 臨溪 老德 東村 五九 屯地 東一 東二외 九個少年會代表者數十名이 參席하야 臨時議長으로 高宗鉉君을 推薦하고 規則起草委員三人을 選定하고 創立大會는 二月十五日上午十時에 開催하기로 決定한後 創立準備委員을 如左히 選擧하야 各地巡廻其他準備事務를 一任하고 盛況리에 散會하얏다더라
金興在 趙勳 千義鏞 李鎔瓚 高宗鉉 李松永 李極烈(北靑)

統計集錄

◇大田郡의戶口 大田郡內戶口數는 一萬八千三百七十八戶 九萬七千四百〇九人인바 國籍別人口數는 日本人男三、二六〇人 女三、〇一四人 計六、二七四人 朝鮮人男四六、二八八人 女四三、四〇六人 計八九、六九四人 中國人男二五七人 女一四人 計二七一人 其他男二人 女三人 計五人인데 此를 面別로 하면 如左하다고

面名	戶數	人口數
大田	二〇六三	八六一三
外南	三一七四	一七〇六〇
柳川	一六八七	九一九四
山內	一二一三	六六九二
鎭岑	八一七	四六二〇
東面	一三三五	七二七三
北面	一三六〇	七一六六
九則	一一七七	六六一六
炭洞	一〇九七	六〇四九
儒城	一二七五	六六一六
杞城	一七四六	九七二八
鎭岑	一四三四	七六七八

(大田)

◇大田各校生徒數 客月末現在 大田各學校의 生徒數는 全部九校 男女學生을 合하야 二千六百九十三名이라는데 今春卒業生徒數는 三百四十八名이라하며 各學校別로는 如左하다더라(大田)

校名	制度	卒業生數	生徒總數
中學	五年制	五六	四〇七
高女	四年制	四七	一二二
商補	二年制	二九	八〇
一普	六年制 男	五二	七五八
	女	六	八五
二普	四年制 男	—	三四六
	女	—	一二一
新灘	四年制 男	四二	一五八
	女	—	九
鎭岑	六年制 男	三八	三四六
	女	—	一七
東明	四年制 男	三六	一四五
山內	四年制	不明	不明

(大田)

◇黃海道內의車輛數 一、自働車 七七輛 稅三、〇八〇圓 一、荷馬車 一五輛 稅七五圓 一、牛車 一三四一輛 [illegible] 一、自轉車 七七八〇輛 稅一五、六七〇圓 一、人力車 二〇〇輛 稅四〇〇圓 一、荷車 一、一二七輛 稅二、二五四圓 計 [illegible] (海州)

◇黃海道의俸給 現在黃海道內에서만 面郡과 其他司法官廳만은 除하고 純全히 道에서만 쓰는 人件費는 大概今年度豫算에 依하면 俸給이 [illegible] 計四三七、八六九圓인데 此를 國調後黃海道의 世帶數二八八、七三八에 按分하면 每口平均一圓五十錢以上이며 道總經費一、六八四、二一四圓을 人口別로 分擔하면 每一人平均一圓十五錢以上에 達한다고(海州)

南川發展策決議
去二日市民大會에서

南川市로 말하면 京義線中央地點되는 南川驛前인 同時에 東으로 南谷線 西으로 南海線自働車가 開通된後로 乘客과 貨物의 出入이 날로 늘러가며 市街의 整理와 家屋의 刷新함은 四五年以來料外의 大發展을 보엿하는바 그 向上의 程度는 따라 此以上의 發展策을 講究치 안흐면 아니되겟다고 感한 一般有志의 發起로 去二日當地尋常小學校講堂內에서 市民大會를 開하고 滿場一致로 左記案件을 決議하엿스며 따라서 實行委員은 張丙植氏外十三人을 選擧하엿다더라
◇決議
一、電燈會社創立의件 一、電話架設의件 一、驛前埋立의件 一、南川驛改築의件 一、驛前道路修築의件 一、南川繁榮會創立의件 一、其他(南川)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海剛君에게

◇君아! 君이 本欄을 通하야『鎭安人士들에게』라는 題目下에 美言佳句를 羅列하야 腐敗하여가는 우리 鎭安사람의 머리에 淸新한 波動을 주게함은 먼저 謝意를 表한다

◇그러나 나는 그 글을 읽는 同時에 君의 그글을 쓰게된 動機를 疑心아니치 못하겟다 即君의 論文意가 侮辱的이요 攻擊的이며 實로 君의 無定見을 表示하얏슴이다 秋毫도 愛에서 울어나온 眞情의 表現이 업슴이

◇君이 社會施設의 不備를 말하엿스니 그 무엇을 이름이냐 大學中學을 세우란말이냐? 大工場大會社를 세우란말이냐? 勿論우리의 事業으로 무슨 볼만한 事業이나 特種의 施設이 잇다는것은 아니나 마는 [illegible] 것은 認定할것이다

◇또 本郡靑年會를 말하기를『一年이 지나되 總會한번을 보지 못하엿다 幹部가 누구인지 일홈도 모르나 內容이 腐敗하며 會員이 一千名도 못된다』라고 하얏지마는 [illegible] 그 歷史가 十有餘年이요 會員이 六十餘人이며 德智體三育에 힘잇는대로 實行함에 으뜸이 업는것은 君도 否認치는 못할것이다

◇君이여! 新聞支局이 업스면 新聞을 읽지 못하는줄로 아는가? 作亂도 분수가 잇고 戲弄도 限度가 잇는것이다 事實업는 虛僞로 外人을 侮辱하기 爲하야 千金가튼 貴한 歲月을 無端히 虛費하지 말고 차라리 作文練習에 힘을 쓰는것이 君을 爲하야 利로울가 한다

◇動하노니 君이여 참된 精神을 가지고 바른길을 차즈라 그리하야 人을 實하기 前에 먼저 悔改함이 잇기를 바란다(鎭安一靑年)

無產靑年委員會

鐵原無產靑年會는 去三日東亞日報支局內에서 第五回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新入會員決議와 事業經營에 對한 交涉委員選定과 委員補選의件과 朴訓導〇〇事件調査와 各團體聯合懇親會開催의件과 靑總加盟의件을 決議하얏다더라(鐵原)

◇風琴寄贈

咸南利原郡南面遮湖港 崔殷錫氏는 遮湖幼稚園을 爲하야 價格一百八十圓되는 風琴一臺를 寄贈(利原)

金谷靑年臨總

仁川金谷靑年會에서는 一月三十一日同會館에 臨時總會를 열고 左記委員을 改選하엿다고

日光少年創立
馬山에도

慶南馬山에서는 去一日少年五十餘名이 모혀 長時間少年問題에 對한 意見을 서로 交換하다가 卽席에서 日光少年會를 創立하얏다는데 當日決議事項과 選擧된 任員은 아래와 갓다더라
◇決議
一、每水曜마다 童話會를 開할일
一、發會式을 來七日午前十一時에 盛大히 擧行할일
一、發會式을 擧行하는 當日數千枚의『비라』를 全市街에 散布할일

雜稅는新設코
公衆運動場은否決 長城面協議會

全南長城郡長城面事務所에서는 面協議員을 召集하고 公衆運動場을 工事費만 一千五百圓인데 그 費用을 一般面民에게 夫役賦金으로 二十二等級에 最上十五圓 最下三十錢으로 分擔케 하려하엿던바 公衆運動場은 아직 時期尙早로 討論하야 結局否決되고 土木費에 充當하고 衛生費增加됨을 따라 料理店酌婦藝妓의 檢黴도 面으로 負擔함은 面民을 爲하야서라도 雜稅金을 抱主에게 賦課하야 充當하도록 決議하야 十五年度부터 實行하기로 하엿다더라(長城)

學術大講演

仁川京仁通學生親睦會에서는 朝鮮學術界에 名聲이 赫赫한 大家를 招聘하야 六日下午七時부터 仁川公會堂에 學術講演會를 開催한다는데 演士를 紹介하면 哲學博士趙炳玉氏는 習力의 權威라는 演題로 醫學博士金昌世氏는 健康과 偉人이란 演題로 文學碩士尹肯鍾氏는 米國文學의 一端이란 演題로 講演한다고(仁川)

巨濟現代劇

慶南巨濟島二運面에 現代劇書藝團團長盧成君一行(統營少年團體後援)의 來島를 機하야 東亞日報巨濟支局後援으로 社會劇『永遠의謎』『勞働의神聖』『無產者의悲哀』『苦心은未及』等을 興行하야 一般觀覽者에게 만흔 感覺을 줌으로 到處에 大滿員이엇던바 東亞朝鮮日報讀者優待한다더라(巨濟)

◇任員
會長 姜小守 副會長 姜永 總務部長 盧成大 庶務部長 姜又鳳(馬山)

遠近人士同情
會館建築과

慶北尙州郡靑里面에 잇는 靑里靑年會에서 會館을 建築코자 素人劇團을 組織하야 가지고 該面內에 巡廻中이라함은 旣報한바 同劇團을 爲하야 同情이 만흔中 朴大驄女史와 野川武子라는 日女子의 同情에 一般人士가 더욱 稱頌한다더라(尙州)

禮山擲柶大會

旣報禮山擲柶大會는 今月十三日午後三時부터 開催하게 되엿던바 形便에 依하야 申請期限은 二月十五日外지 開催日字는 二月二十日午後三時부터 開催하기로 變更하얏다더라(禮山)

本報抱川支局
代理部開業 去一日부터

本報抱川支局에서는 昨年十一月八日에 代理部創立總會를 開催하고 着着準備中이라함은 旣報하얏거니와 同代理部에서는 農村無產婦人으로써 職業을 엇게하며 따라서 交通不便한 村落家庭에 文化的改良雜貨品을 廉價로 行商販賣하기 爲하야『抱川無產婦人바늘장사組合』을 組織하며 學資困難을 當한 無產學生으로써 京城天一藥房製藥品을 行商식혀 學資를 多少得케하기 爲하야『苦學生賣藥學資成金會』를 組織하고 去一日부터 開業하얏다는데 行商希望者는 速히 申込하기를 바란다더라(抱川)

沙里院德盛校
維持會組織

京義線沙里院德盛學校가 最近에 至하야는 維持하기가 正히 困難하더니 東西部教會有志靑年二十七人이 去三日西部教會傳道室에 集合하야 德盛學校維持會를 組織하고 維持會等級과 委員을 選定하고 散會하엿다는데 理事四人은 東部教會 左와 如하며 理事四人은 西部教會에서 二人을 追後該教會에서 選擇하기로 하엿다더라
◇任員
會長 田義鍾 書記 金貞河 會計 崔泰桓 監查 金承仁 李時馥 理事 田潤 崔泰鋒 金承仁 崔昌瑚 崔鎬 張裳燮
◇等級
一等 一百五十圓 二等 四十圓 三等 三十圓 四等 二十圓 五等 十圓 六等 五圓(沙里院)

地方經濟

安州各產業工場
大正十四年末現在調

◎栗山染織所 工場主 金偉濟 資本金一萬二千圓 職工數四六名 生產品 官紗花緞熟綃 生產額八萬圓 創立年度 大正十年七月中
◎龍興染織所 主 李鳳鎬 資本金一萬三千圓 職工數四二名 生產品同上 產額高六萬圓 創立三年前
◎龍峰絹織所 主 朴英森 資本三千圓 職工二〇名 同上產額高五千七百四十圓 昨夏期創立
◎日新染織所 主 韓泰卿 資本金三萬圓 職工二四名 同上產額高五萬圓 昨秋創立
◎大聖染織所 主 李寬淳 資本金八千四百圓 職工一五名 同上產額高六千三百圓 昨秋創立
◎東面製紙所 主 徐石律 資本金二千圓 職工六名 生產朝鮮紙二千塊 產額高一萬圓 創立二年前
◎淸川杞柳工場 主 大石佐一 資本金六千圓 職工一七名 同上柳行李外쓰깃等 產額高九千二百圓 創立十三年七月
◎黑鉛製煉所 主 柴田次郞平 資本三萬圓 職工十八名 同上黑鉛製精 產額高二萬七千圓 創立九年前
◎東面製瓦所 主 泉兵太郞 資本金二千圓 職工五 同上煉瓦 產高三千圓 創立昨年中
◎精穀業協興精米所 主 金興三 洪寶鎭 資本金二萬圓 職工十四名 同上玄米業 六萬二千圓 創立四年前 其他 十三個所 資本總額十六萬三千五百圓(姓名畧)
◎朝鮮燒酒釀造所 主 金贊奎 資本二萬圓 職工十一 同上生產高三萬圓
但職工五人以內의 工場은 略함(安州)

城津牛輸出
十二月中 城津港에서 日本으로 輸出한 食用牛肉은 牝三十三頭 牡二十四頭 計五十七頭 一萬四千九十一斤 價格四千一百九十六圓인데 輸送地는 山口 福岡 福井 大阪 京都等이라더라(元山)

元山對米貿易
元山港의 昨年中對米貿易은 輸出에 三十圓 輸入에 石油七十九萬六千圓 揮發油四萬九千六百圓 機械類一萬五千九百圓等 重要한 것으로 合計八十六萬六千九百十五圓인데 此를 再昨年에 比하야 輸出에 二萬四千四百餘圓이 減少되고 輸入에 十九萬九千三百圓이 增加되엿다더라(元山)

一月中對中貿易
一月中元山港의 對中國輸出入高는 輸出에 五萬六千一百二十圓 輸入에 四十二萬二千七百八圓인데 此를 客年同期에 比하야 輸出二萬二千五百四十五圓 輸入十二萬七千三百一圓이 增加하야 其重要한 것을 示하면 輸出에 海蔘 鹽乾魚 明卵 車輛等이오 輸入은 滿洲粟이라더라(元山)

慶北各驛檢穀
慶北線各驛에서 客年一月부터 同十二月外지 各穀物의 檢査한 總數는 玄米合格三五八、七〇〇叺 玄米不合格二七、五四五叺 白米合格六七叺 大豆合格一、〇六七叺 大豆不合格二四六叺이라는데 此를 各驛別노 區別하면 如左하다더라
【尙州驛】玄米合格一〇一、九六六叺 白米合格一三叺 大豆合格八叺 玄米不合格七〇二二叺
【玉山驛】玄米合格三六、[illegible]叺 玄米不合格五、九三〇叺 白米大豆全無
【咸昌驛】玄米不合格二、二四七叺 白米大豆全無
【店村驛】玄米合格 [illegible]

◇講演會盛況 一月二十九日元山府內南村洞禮拜堂엡웟靑年會少年部의 主催의 講演會는 李善鎏君의 하모니카獨奏와 李林信孃의『적은點子』란 어린이의 遊戲는 七八百名會衆에 만흔 늣김을 주엇다고(元山)

◇在京農民夜學 大同郡在京里面新仲里 有志靑年方祥鎬氏는 文盲農民을 爲하야 舍廊에 農民夜學을 開催하고 每日午後八時부터 同十時外지 熱心教授한다는데 現在通學生이 三十餘名에 達하엿다고(平壤)

◇面長協議會 茂朱郡廳에서는 四五日間各面長의 會議를 開催하고 二十餘件의 諸問事項이 有한바 諸般事務의 打合이 決定된後 同郡產業團體에서 各面長慰勞會를 開催(茂朱)

◇德盛校長新任 京義線沙里院私立德盛學校前校長韓錫瑢氏가 辭免한 以後로 主人이 업서 大端히 困難을 當하던次에 얼마前早稻田明治大學法科出身인 文喜天氏를 校長으로 延聘하게 되엿슴으로 同校는 新主人을 迎하야 從來의 만흔 問題가 解結되리라고(沙里院)

▲正誤 本月三日發行本報朝刊第一千九百三十二號에 記載된『[illegible]四千餘住民怨聲이 冲天의 理由』란 記事中 黃海道記者特派員 莊獻俊氏의 姓字 莊獻字로 誤植되엿기 玆에 訂正함

◇慰勞會 京義線沙里院市民有志三十餘名은 去三日博多屋에서 今般第六回黃海道評議員과 新聞記者의 慰勞會를 開催하얏다고(沙里院)

◇擲柶遠征 京義線沙里院擲柶團은 來二十日(陰正月八日)土曜日에 瑞寧信川兩郡擲柶團과 競技試合코저 出征한다는데 場所와 出發時刻과 會費는 左와 如하다더라
一、場所 信川溫泉大黑旅館
一、出發時刻 二月二十日午後一時五分沙里院驛發 午後三時八分信川溫泉驛着
一、會費 各人前三圓式 團員과 志願者는 沙里院本報支局으로 照會하라고(沙里院)

◇自働車賃金引下 金浦自働車는 昨年十一月에 經營者가 變更된 以後로 業務를 一層擴張하는 同時에 一般乘客에게 便利를 도읍기 爲하야 賃金을 減下코자 方今當局에 申請中이라는데 從來金浦、永登浦間一圓八十錢을 一圓五十錢으로 減下한다고(金浦)

◇昨年安州收繭高 安州郡一圓 昨年收繭高는 一、春繭八百〇四石 一、夏繭九十八石七斗 一、秋繭三百〇九石 合計一千二百十一石七斗(安州)

◇十六面長會議 開城郡에서는 郡內十六面長을 全部招集하야 지난 一月二十九日부터 二日間松都面事務所樓上에서 十五年度豫算編成을 비롯하야 農事改良蠶桑獎勵等에 對한 會議가 잇섯다고(開城)

八面鋒

◇【義州】 요사이 [illegible]에는 賭博과 密賣淫이 아조 大盛況이라는데 所謂紳士階의 出沒이 만타 하니 이것도 破滅의 一現象

◇【端川】 端川郡어느 面所에서는 罹災民救濟金인지 慰勞金인지 한것이 道로郡으로 갓다 面所外지는 갓다는지 빌서오랴대 정작 罹災民에게는 어느때나 줄라는지?

◇【長城】 日本人[illegible]高等小學校에서는 今年부터는 普通學校卒業生은 絶對로 入學拒絶을 하기로 決定되엿다 한다 이것이 當然하다 하면 入學하라는 자는 무슨 心腸이라

京城鍾路二丁目(네거리)
메리야쓰廉賣
漢英公司雜貨店
電光一一二三番

社告

一、支局의 名稱 鐵原支局
一、支局位置 鐵原邑內中里鐵原靑年會館內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崔競燮
右와 如히 鐵原支局에 對한 一切를 變更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옵소서
總務兼記者 盧秉鎭
記者 金相德
記者 金順益
記者 金鳳翼
記者 高泰鳳
記者 朴南極
朝鮮日報鐵原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 地方報道를 一層迅速케 하기 爲하야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옵소서
記者(駐溫山) 朴一光
記者(駐江華) 嚴秉永
朝鮮日報蔚山支局 白

今般本支局을 擴張키 爲하야 寫眞班을 置하고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 柳重永
朝鮮日報禮山支局 白

今般本支局新泰仁驛駐在記者 崔成龍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井邑支局 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Feb. 6th, 1926.

GIVING EUROPE ANOTHER CHANCE
BY J. RAMSAY MacDONALD (N. Y. "NATION")

II

What is its real significance regarding the more Western states? One is told that this pact means that Germany is to accept forever the Rhine frontier arrangement imposed upon it by the Treaty of Versailles (just as if France had signed a pact about 1880 binding itself to remove from the Place de la Concorde the statues of the forfeited towns and dream of Alsace-Lorraine no more) and that both countries bind themselves to submit all quarrels to arbitration. Certainly a document with such words upon it looks to be worth something, and as practically every newspaper in Western Europe welcomes it, it is worth something on that ground alone. The newspapers welcome it but not for the same reasons; indeed they differ profoundly in that respect. Public men, like the newspapers, unite in acclaiming it, and quarrel as to the reasons that happen to have brought them together. But we must not be too meticulous on these points. Whoever can get Europe to believe in peace, to believe that it is secure, to believe that it has found a cure for itself, will have done something to give Europe peace, security, and cures. It is really something to get the whole of Western Europe saying with its prayers every morning: "I am good; I am getting better in every way day by day." The document that sets Europe doing that may have as little in it as the proverbial doctor's prescription of *aqua pura*, but it may be of grreat benefit. The quack cures as well as the doctor. Here genial cynicirm comes in, not to destroy faith but to protect it by widening its foundations.

歐羅巴의事情 (二)

限死的態度로 絕對緘口不言

취됴를마튼경찰관들도 단서를엇지못하야초조

警察部被捉靑年事件後報

석간긔보=국경방면에서다수의청년이 조선내디에서 모모의 계획을 실행코저 엇더한긔관에 들어왓다가 일도시작하기전에 몰리여 경긔도경찰부에 알게되여 그중세명이 톄포되엿다함은 석간에 긔보한바인데 그세명을톄포한 전긔경찰부에서는 그것을 단서로 련루자전부를 톄포코저 방금도 엄중한취됴를 계속중이나 지금까지도 입을다물고죽기를결단하고 취됴에응치를안홈으로 동경찰부에서는 퍽이초조하게녁이는중이라더라

油工問題로 경찰서지헛수고

긔보=목포제유공파업이래회사측(木浦製油工罷業以來會社側)에서는 별별수단을다하야 새직공을 모집하기로 분망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정황을 보건대 시내온금동구번디(溫錦洞)에 사는 강민수(姜敏秀) 박태규(朴太圭) 리긔호(李淇浩) 세사람은 제유회사의 뢰임에들어 새직공모집에 응하엿다는바 이보고를들은 파업단원은 리세사람의집을 차저가서금번파업의 사정을듯고곳반성(反省)하야일제히도라가서사죄문(謝罪文)까지써왓는데 한놈리사람으로 이것이 웬일이냐?」는하고도라온것을 본회사측에서는 이것을 경찰서에 말하되파업단 수십명이 새직공집에 달려들어 사람을 죽인다고 하엿슴으로 경찰서에서는 이급보를듯고 경관대이십여명을 출동케 하야그의뒤를 따른즉사실은 허위가된바 전긔세사람의 친구두사람이 그집을 차저가서 파업의상황을 말한일인데 회사측에서는 공포심(恐怖心)이 몬저나서 그와가티무고한것으로판명된것이라더라(목포)

日海軍機密地圖

竊取犯人의背後에는 미국사람의선동이잇는듯

작년십이월ㅣ십이일에일본동경역(東京驛)의휴대품일시예치소(携帶品一時預置所)에 모함장(某艦長)재등해군대좌(齋藤海軍大佐)가맛겨둔 일본해군최고군긔비밀디도(日本海軍最高軍機秘密地圖)한장을너허둔유량크」한개를엇던자에게 절취당한 괴사건이 돌발할당시에 해군성(海軍省)텰도청(鐵道省)헌병대(憲兵隊)경시텽(警視廳)등에서는 며랑대를놋기고 극비밀리에서범인을 수색하든중 이엇스나 일개월이 지나도록 하등의단서를 엇지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드러가든중 모일본문신문지상에 이사건이 발표되매관계되는각당국자들은일층 더 초조한긔색으로 일본백성들의 주목의초뎜이 되엿다하며 범인의행동에 대하야 모당국자의말들으면그범인은 상당히 교양이잇는 지식계급의 인물로서 그배후에는 미국인(米國人)이 응원을하는 모양이라하며 이미범인은 조선을경유하야 로령「할빈」드러가서 미국인에게 다액의금품을밧고 판형적이 잇다더라

순사를무러뗀 합석도적은 드듸어톄포

오일오전 다섯시경에 시내본뎡서원이 관내를순찰하든중에 시내고시뎡(古市町) 사십구번디 안흥도 합석(合錫)잔득실흔 구루마를끌고 가는자가 잇섯슴으로 동순사는 수상하게녁이고 누구인지를 물엇든바 과연그자는구루마도 그대로둔채 도망하기시작함으로 동순사는 그자의뒤를 삼뎡가량이나 추격하야 드듸여 톄포할여할즈음에그자는다시순사의손목을물어 뜨드면서극력반항함으로 이에일대격투를 연출하고결국 톄포하야 본서까지인치취됴하엿든바 그자는제주도(濟州島)출생으로시내청엽뎡(靑葉町)에현주하는 량긔성(梁基成)(二三)이란자로 전긔합석은텰도국(鐵道局)에서훔친것이며그 가격은 팔십원가량이라는바 구루마는 시내청엽뎡 일백구십칠번디 류병윤(劉秉潤)의집에서절취한것이라고자백하엿다더라

部長의權威로 어린아이과싸홈 어린아이를가둬

강원도텰원읍내중리(江原道鐵原邑內中里)순사부장 고영훈(高永勳)아들경수(慶秀)(一四)와 동리에사는 고무신장사 김우현(金佑鉉)아들 천길(千吉)(一三)이가 지난달 삼십일일오전열시경에 집 가에서 서로싸홈을 하얏는데이것을드른고영훈은분이나서두번이나김우현의집에가서 그집아들 천길을 차지며큰아이가어린아이를 따렷다고말함으로 김우현은 말하기를철모르는 아이들이 싸홈을한것이니 용서하라고하며 천길이가 집에들어오면 곳부장댁에 보낼터이니좀 아리롭녀 훈계하야달라하얏슨데고영훈이가도라간후천길이가 집에들어 왓슴으로 그날오후원곱시에 천길을 보내인후 고부장이 두번이나 차자왓던것이 수상하야 천길의 누의가뒤를따라갓섯는데 천길이가 문을열자마자 고영훈은 옷을벗기고누엇다가 벌덕이러나며 닷자곳자로달려들어 천길의누이가 말하기를이가튼 일이 어데잇느냐 무엇이되느냐 하고 곳 그리로도라가 사무실뒤에다가 세워두엇다가 아홉시가된뒤에 내여보냇다더라(텰원)

連續한市街를 市外區域으로取扱

홍원우편소에대하야 주민은진정서를데출

함남홍원(咸南洪原)읍내에잇는 홍원우편소에서는 우편소소재디로부터 불과일뎡의 거리되는 시내남산동(南山洞)과 그에련한뎡거장(停車場)을 시외구역(市外區域)으로 지뎡하야 우편물이 홍원우편소에 오고도수삼일후에야 바다보게 되는때가 잇슴으로뎡거장부근 남산동일대는 우편물에대한불편이 심하야 구두(口頭)로써 시내구역에 편입하여달라고 홍원우편소장에게 두차신청하얏스나 종내듯지아니함으로 요사이에는 그부근일대 사람들이 련서(連署)하야 원산본국에진정하기를 준비한다는데 원래남산동은 공디이던바 작년십월에 전진역(前津驛)이 개통된후로점점가옥을짓기시작하야지금은한촌락을이루어우편물왕래가빈번한데홍원우편소에서 시외구역으로 지뎡한것은 현금에도 시내배달부가적은유감이잇는바 그곳까지 시내구역으로 편입하면 배달부를더 고용하지 안흐면 안될터임으로 아마경비를 앗기여서 시내구역에편입을 즐겨아니함인듯 하다더라(홍원)

鐵原에竊盜 운송뎜에침입하야

지난사일 오전세시경에 텰원역전(鐵原驛前)삼성운송뎜(三省運送店)민광현(閔光鉉)씨의 집에엇더한자가 침입하야 현금팔십육원 칠십팔전과 동주금융조합(東州金融組合)당좌예금통장 한개와소절수책과도장이들어잇는수케금고를집어갓는데범인은 아즉톄포치못하얏다더라(텰원)

돈안취해준다고 衡平社員을毆打

피해자는방금고소를준비

지난삼일 오전열시경에 군산형평사(群山衡平社)에서긴급회의를개최하고 림시됴사위원으로 리동환(李東煥)씨를선뎡하야급작히익산군함열(益山郡咸悅)디방으로 파송하야 됴사에착수하얏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즉 그곳함열에서 사는됴하섭(趙夏燮)이가그디방에잇는 형평사에 잇는송미양(宋美良)이란녀자다려약간의 금전을 좀취해달라하되취해주지안하엿더니전긔조하섭이가며노하야『이년 량반ㅣ녀가튼백정년에게청한돈을주지안는단말이냐』하고당석에서 무수란타하야중상을 당한고로곳 그근처에잇는삼산의원(三山醫院)에 입원하야 방금치료중이라는바 우위독하다는 그와가티 형평사에서는 급보를듯고 군산의원을 파견하얏다는데그피해자는방금고소준비중이라더라(군산)

奸夫가잇다고 리혼소송데긔

울산군중남면신화리(蔚山郡中南面新華里) 정달순(鄭達順)은 작년칠월부터 간부(奸夫)잇는 긔색이잇든바 항상 그의행동에 주목하고오든중 지난일월중순에 전긔김선례(金善禮)가 본부를 ㅣ다가 동디 중남주재소에 가서 리혼을 청한바동소순사는리유를들은즉 「동디중남면신화리 김성업(金性業)이라는사람과 작년칠월부터 루례의 관계까지 잇섯는데 그가말하기를 부산방직회사(釜山紡織會社)에가서 살자고하며또주재소에가서 본부(本夫)와 리혼을하야달라고하면 하야줄터이니 리혼을하고는밤에도주하야서면리 부산에가서살겟다」고하는바동소순사는그러한못된생각을말고 다시마음을 고처잡으라고 도ㄷ가라한바 전긔선례는 친뎡으로갓다가다시 의가로 향한즉본부니 정달순은 분함을 억지로참고 전후사실을 자세히 물은즉역시 전긔사실을 대답함으로 정달순

面職員이農民毆打

아니바들더세를밧고도 무리하게구타지하여

지난일월ㅣ십륙일 오후두시쯤하야 황주군귀락면사무소(黃州郡龜洛面事務所)에서는 엇던동민ㅣ사에서는 엇던농민에사하를 면장에게 면서긔두사람이 언제 올하다가 나중에는 구타까지하야농민은거의혼도하엿다가다시 도망하여하고 면서과서긔 두사람을못가게하는등 일대활극이면출되엿는 데

일대활극 이면출되엿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면동군 주남면소선리김용운(同郡州南面少仙里金用云)은동군구락면에약일천이백평의논이잇는바대정십사년도디세납입고지서가긔한이지나도록발부되지안홈으로 지난달삼십일에전긔김용운은자긔집에서사십리되는면곳에잇는전긔면사무소에그리유를알고저갓든바 그때는 면서긔로

면사무소 에서사무를보던 김용운은 그면장집에 지안흠으로 다는 면서이라

량긔분을 한집에밧는것이 상례(常例)임에 불구하고 두ㅣ긔분은납부할예에일이 한쪽 전긔와가티 소액의디세는 리ㅣ생각하고여러사람에게문의하였다 영ㅣ 디세가칠원ㅣ될수업스 우원천ㅣ백평에 지나지 못하는 려즘으로 김용운은 도라와서겨 융하는 명함으로 렴수증을만드지불한쪽면장은자긔사사로이사

데이긔분 으로김용운은십원을다시 으로김용운은 아모의심 업시또 권을당석에서밧고면장은 긔고지서를 만든 디세를 의지하야 과거(課稅;徵收)에 의하면서 디세명 세과징(過徵稅)의리유를질문

내이라고 한즉면장은돌 연히 성을내며 김용운을 질책하며 서긔 김세룡(金世龍)과 동면서긔두사람이 달려들어 세사람이어 우려져서 손과발로 무수히란타 하야 김용운은 정신을일코혼도 하얏다가 다시정신을차려 부서 진갓을 주어가지고 저우면사무 소를 버서나도망하야 자긔집으 로도라오든바면장은

동면서긔 리익선(李益善)을보내여 더바든디세를줄터 이니면소로오라하엿스나김용운 은그가티무죄한사람을함부로구 타하는곳에 다시 갈수업다하야 도라가지 안코 울분한생각을 먹음고 집으로갓다는바 디세를 더바든 것은 불분이요 아지못하는농민을 그가티함부로 구타하는것은도저히 유납지못할 행동이라하야 일반은그면장에대하야 비난이자자하다더라

過徵稅返附는 경찰서에의뢰

디세를 더밧고 도리혀촌민을구타하엿다는 황주귀락면장 김원준(黃州郡龜洛面長金元俊)의비행에대하야는 벌써보도한바어니와 촌민을구타하든 현장에서 그광경을본 황주군 림세무서긔 실수를 목격하매 면장에게 나서 그날밤으로 황주경찰서에 가서 디세의반환을 서장에게의뢰하는동시에 무사하도록 하여달라고간절히부탁하얏든바지난일월삼십일에 서장이 김용운을 불러 그돈삼원팔십칠전을 내여줌으로 김용운은 분함을 참고 눈물을먹음고 그돈을밧아일엽시바뎟다더라(황주)

日本과奉張間의 密約內容暴露

곽송령의패전한리유는 전혀일본의롱락이라고

留日中國學生排日에努力

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동삼성(東三省)일본류학생은지난일월ㅣ십팔일부로 장작림(張作霖)씨가곽송령(郭松齡)씨를 토벌할때의 일본군(日本軍)에 원됴를 청하얏슨데 그대상으로아래와가튼리권(利權)을양여할밀약을 톄결하얏다고 배일선던문을각방면으로배부하얏다더라

◇密約內容

一、海城以南의各縣을讓與

二、二十一個條의承認

三、鴨綠南江軍行權의讓渡

四、東三省內의鐵道並鑛山을均等으로中日同辦할事

五、日本人에對하야東三省內에自由居住權土地所有權을得케하고治外法權에依하야警察權을行使식힐것

六、奉軍에參加한日本人으로戰死한者에게는各人에對하야救恤金一萬圓을支給할것

(봉텬뎐)

▷第一回投票規定◁

每月一題 讀者懸賞投票募集

◇問題 어느商店看板이第一조흔냐가

◇賞品 一等(十八金腕時計一箇)一人 二等(廣木一疋)一人 三等(水木二疋)一人

(京城市內朝鮮人商店中에서)

◇投票 二月一日부터同十五日까지京城水標町朝鮮日報社編輯係로보내시오 (市內及附近讀者에限하되本紙揭載의投票用紙에限함)

◇方法 投票點數最多點을得한商店의投票中에서 一等一人 二等一人 三等一人을抽籤함

◇抽籤 二月十八日에警官及中央業會幹部立會下에

◇發表 二月二十日附本紙紙上에當選者發表

◇注意 (一)指定한投票用紙以外의投票는無效 (二)一人의名義로十枚以上投票한것은全部無效 (三)投票의封書에「懸賞係」라고特書치안는것은無效

▷朝鮮日報社◁

東中線停運間 在滿同胞의困境(二)

뎡거장한모퉁이에서 굶어가며여러날경과

長春에서 李天海

그러나 우리는무엇이라고 말할수가업섯다 다만효력업는 말로 걱정도하고 위로도하면서 량책을생각하얏스나 조흔방침이 썩나서지아니한다 랴심과 미안한 마음을 억제치못하며 느리진거름으로 건너편일역(日驛)으로 가보앗다 그곳도역시 흰옷입은 백의동포가 드문드문 석기여잇는데 그들은다 로역에잇는사람들의가족으로 묵을장소를 차저 그리온것이다 그들역시 로역에서보든사람들과가트며 가튼말을한다

우리일행 은거긔서나와서승강장(乘降場)압헤서배회하고잇섯다 조곰잇더니 일역대합실에잇든 우리동포들이 우ㅣ밀려나와서 로역으로간다 하도이상하야그리유를무른즉일본뎡거장에서는 시간이지낫다고 문을다들러이니로서아뎡거장으로 가서자라하며 이번문데는 로중(露中)의관계인즉당신네로서아뎡거장의 책임이라고 모라내여서그리로가는것이라한다

아ㅣ일본 인의조선민족에대한태혹한심정을보아라!만일일본인이 이런경우를 당하엿다하면 엇지하얏스랴? 아서다 그런생각을하는 내가 무한이어리석다 인제야그런줄 아랏더냐 우리의 오늘원인이 어대잇느냐? 우리는다시 그들과가티 로역으로서아 사람역원 십여명이 아동대합실로 가서보니 그곳에 로약합하야 일백열두사람이나 되다말이구케이지 무슨 녁녀한 구제가잇스랴 랑에반도못칠 장소에 머무든게하얏는데 남녀 가서그들을 다데부러다가권과에 권일 리규환량군이뎡거장에 정을 엇어서덕국 구제를하자고 결의되야 시내동이조통(東二條通)에잇는 중국인의 부인집한채를 세로 어더노앗다그이튼날(일월이십륙일) 이른아츰 그덜을 마커드리노코 일반의동정을 엇어서덕국 구제를하자고

위선수용 소를뎡하야서 강구하얏다

국려객을 다모라내고 역원들이몰려안준다자와 의자를 한구석으로미러치운후 산능 대합실에 잇는우리동포를 전부옹기여 드리엿다 그러나반항하는사람은 하나도업고 마음대로 하라는지 아모말도업다 호잡한작석을겨우 뎡돈하여주고 못미더움고도 섭섭한마음에아니떠러지는발길을 억지로옴기여 석산양행으로 도라와서 몃몃유지들과 선후책을

농사를지 으면버(租)열섬난데서여덜섬팔할(八割)을 디주가 쌔서가니 무엇을먹고살겟슴니까만일디주가내라는대로 가지가지아니하면 당장에소작권을박탈하며가산을차압(差押)하니엇지살며 돈잇는 사람들의 세력을 당할수잇슴니까 점점살수는업고 만주농사가 리익이잇다하기에 죽든사든 한번가나보겟다고 몃푼안되는 가산을방매하야 겨우차비나 하여가지고온것인데

불의지변 을당하야만리타국에서 늘근부모와 어린처자로 이지경을당하얏스니 인제는 오도가도 못하고곡죽엇슴니다」하고 술픈눈으로 바라본다아ㅣ 이세상을 조상하야것다 불압리한 이사회데도 이불공평하고도 비참한 현상이 올마나더오려가

과쓴상은 그들과서로 떠나지못할구든연분이란 말이냐? 이곳에거류하는 동포덜도 거의다쏘기여다니는 사람중에는 선진자입으로 새로온 동포들은만주에 이주하게된 원인과동긔를 스려하며사정겸 말하엿다『참조선에서는 살수업슴니다 동텩(東拓)

조선밥과 쓴간장을반찬으로주엇다 그덜은 내디에서도 피땀을흘니가면서 일하야 노코는모도 빼앗기고 조선밥으로근근히 런명하든어덜이다 조선밥

이것을본 우리는 억울함을 참지못하야 만약 반항을 하면 겨투러도헐 직접으로중

라나? 하로가걸사록 커주의러사「폐ㅣ지」들 더검게 할뿐이다 거더의 복음소작쟁의(北栗小作爭議)와참혹의극을다한자은(慈恩)사건이나 각처에서이러나는

소작쟁의 와로자투쟁그것이 얼마나 유산벌(有産閥)의 횡포를 표증하는것이며 그반면에 얼마나불상한 사람이 산출되느냐 권세계를좋한 약소민족과 무산계급의 비애는 다가튼줄안다 나는 다시

웨치노니 권세계약소민족들아 권세계무산대중아 사활(死活)의 열쇠는 너의손에쥐여잇다 우리대중의 운로는우리가 개척하자 무산계급뎍 정의(正義)아래에 구든단결로분투하자 오날우리에게는 다만단결이 잇슬뿐이다 문데의 동종된지난일월이십칠일부터 개통되얏다 됴난동포들에대한 당디거류동포들의 피얼는동정은 틈틈듯하야 모집한돈은 의외로만액에달하야 큰유감이업시 지난이십구일까지에 그들은다각기 목뎍디로 떠나보내엿다 간후그들의안부는 엇더한지 두손을쥐히들어 축복할뿐이다(完) 一九二六、一、三〇

十八歲의處女 舊道德에殉死

얼골도보지못하고 약혼후에죽은뒤를딸허가

얼골도보지못하고다만부모들이 지뎡하여준약혼(約婚)한이남편의죽음을보고 그남편의뒤를 딸하 자살한 처녀(處女)가잇다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선천군 심천면 리우동(宣川郡深川面梨隅洞)김모(金某)의딸 김정녀(金姓女)(一八)는 작년에 선천군남면 삼봉동(宣川郡南面三峰洞)박봉채(朴鳳采)의 장남히태(熙泰)(一八)와부모들이

서로약혼 (約婚)을하여 두엇든바 전긔히태가 우연히병들어알타가 유려으로 지난구월구일에 사망하엿는데 이와가튼 흉보(凶報)를 듯게된 전긔김정녀는 비록학교교육은밧지못하얏스나 그가뎡에서는 한문공부와고대소설(古代小說)의렬녀전(烈女傳)가튼것을만히보앗는지라렬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도덕뎍관념ㅣ

굿게되어 례식(禮式)은 지내지안헛슬망뎡부모가 뎡하야주신배필을언약한남편으로 남편인즉 청춘인녀자의 몸으로 남편을 일허버리고 외로운세상을 호올로엇지나 지낼가하야 권긔히태가죽은뒤에한이삼일 동안이나 무한히번민(煩悶)과비관을 하다가부모의눈을 속이고 몸을다라서양잿물을먹으려다가

집안사람 에게발견되야 목뎍을달치못하엿다가 다시아모리생각하여도죽은남편의뒤를따르는것이 렬녀의 취할일이라고 생각한드레일천두번재독약을마시고자살하여버린것이라는데권긔히태의집과김정녀의집두집에서는순절(殉節)한김정녀의유지(遺志)를긔념하기위하야합장운동(合葬運動)을하는중이라더라(선천)

虛妄한 處女產兒說

어떠한협잡자의 주작한부인인듯

수일전에 충남연기군 조치원경찰서(鳥致院警察署) 인사상담소(人事相談所)로부터 나히 오십여세나되여 보이는 로파한아가 십륙칠세되여야 보이는 처녀를압세우고 들어오더니 요사이뜻밧게 여러사람들이 자긔딸이 아들을 낫다고 비평이자자하야 일우다니며 변명할수도 업슴을뎐더수업스니의딸의신데를의사에게진단한후 무근한것을 변명하야주고 거짓말한사람을 도사하야 처벌하야달라고 애걸하는다는데 그자세한 내막을 들은즉 지금 일막이 열리엿으면권긔처녀는조치원구시장뎡(鳥致院舊市場町)에거주하는린명숙의둘재딸 복동(福童)(一七)으로 작년봄에 조치원공립보통학교를졸업하고상급학교로가고자하나 학자금ㅣ부족하야 가지못하고 항상부모만 좇으고잇는터인데 그집은 본래로동계에 종사하는 터인고로 조치원부근에서각종청부업(請負業)에종사하는로동자를 만히집에다가 두고 긔숙을식히여 생활비에보충하는터인바 복동의 용모가어엽부고년령도묘령,

잇슴으로 여러사람들의 정혼도 려지아니하나 복동의희망머도 금춘에는 더공부를시킨후출가식히겟다고 거절하고 상급학교로 보낼것을 연구하는중인데엇지된원인인지뜻밧게복동이가아들을낫다고여러사람들이 수근거림으로 복동의가뎡에서는큰걱정거리가되야 권긔한바와가티 복동의모친이 딸을다리고 경찰서에와서지들어가서 원난을

조사하야 달다고애걸을 하는중인데 여하간처녀의 생산하엿다는것은전연무근한말이며 거짓말을 지여내인사람은 누구인지 알수업스나 어ㅣ협의자의 소위인듯하다더라(조치원)

義州에食刀强盜

선폐돈백원을빼서갓다

지난달 이십구일 오후열시경에 의주군 송장면소수동김국서(義州郡松長面小水洞金國瑞)의 집에식도(食刀)를가진강도두명이 침입하야 현금백원을 강탈하야갓다는데 이제탐문한바에 의하면권긔김국서는 생활상 궁핍으로곤난한 살림을하야 오든중귀여운딸의 혼인을 뎡하고소위선폐(先幣)로 현금백원을 바덧든바그것을빼아서갓다더라(의주)

淮陽에覆面强盜

어린아이를협박하고서 돈십원과물품 강탈

지난일월 이십오일오전 세시경에강원도 회양군란곡면 신평리(淮陽郡蘭谷面新坪里)삼백이십팔번디 김형룡(金亨龍)(五三)의 집에복면한강도두명이침입하야 자난김형룡을 허리띄로 묵거노코동몽이로 난타하며 돈잇는곳을말하라고 위협하다가 주인의아들 두환(斗煥)이란 어린애를 위협하며너의 아버지를 죽이기전에 돈잇는 곳을말하라 하여현금육십일원삼십전을 위시하여 은가락지(銀指輪)여섯개와삼베(麻布)세필과 명주두자를강탈하여 가지고도주하엿다더라

말다툼하고 飮毒한女子

참말속좁은 녀편네의짓

시내 루하동(樓下洞)일백오십번디 김영덕(金永德)의안해 한명순(韓明順)(一九)은 사일 오후 다섯시경에 자긔집에서『양잿물」을마시고 자살코자하야 즉시통의동(通義洞)경복의원(景福醫院)의사의 응급수당을 바닷스나 방금 임신오개월인터임으로 매우위태한모양이바 어제 그자살코자한 원인을들은즉 그집에동거하는박석홍(朴錫洪)의 안해 리덕수(李德守)(二三)와 입상사이가 조치못하야 매매로서 위오던중 이날도 눈섭다가서 흥이 시작되야 리덕수가몬저위협뎍으로『그메가정그러면나는 양잿물을먹고 죽어서 분푸리를 하겟다』는말을하자한명순은ㅣ말에 격동되여『그러면나도양잿물을먹겟다』하고 이와가티먹은것이라더라

酒朋을毆打致死

가해자는도망하얏다

황해도안악군 대원면엄곳리(黃海道安岳郡大遠面嚴串里) 리춘식(李春植)(五三)은 지난달 이십사일에동면복사리(伏獅里) 김선필(金善弼)(三六)에게 구타를 당하고지난달삼십일에사망하엿는데 그원인을 들은즉피해자리춘식이는 가해자김선필과가티술을먹고말다툼을하다가그와가티된것이라는바 그급보를들은경찰서에서는 재녕검사와 안악공의와현장에출장하야해부를하여본결과 방광이터저서 죽엇다는데가해자김선필은지금종적을감추엇다더라(안악)

父親의돈가지고

소년이도망을가

텰원군(鐵原郡)텰원면중리(鐵原面中里) 고리대금업자윤상규

놀음빗짜닭에 青年自殺

비상을먹고서

의주군 광평면청성동제이구(義州郡廣坪面淸城洞第二區)에 사는장효철(張孝哲)의 둘재 아들 장려현(張呂賢)(一六)은지난달팔일에 비상 먹고 자살하얏다는데 이제그원인을 탐문한바에의하면 권긔장려현은 엇던부랑배의미혹을바더 도박을 하게되야 남의 돈을만히첫슨데 돈독촉이 자심함으로세상을비관하고그불행의길을떠난것이라더라(의주)

醉客轢死

술이취한김에 길을잘못들어

평남강서군 쌍룡면봉오리 오화두(平南江西郡雙龍面鳳梧里吳化斗)(四五)는 지난일일동군동진면기양시(同郡東津面岐陽市)에서삿쌔리 열두죽을사서 사천시(沙川市)로 실려보내고여러친구와술을 취토록먹고 그날밤에 동군잉차면팔리(同郡芿次面八里)자긔 딸의 집으로 간다는것을평남선(平南線)긔차길로잘못간바 동열시사십분쯤 동군보림면간성리 주산교(同郡普林面肝城里舟山橋)다리에서진남포(鎭南浦)에서 평양(平壤)으로가는 렬차에치여무참히죽엇다더라(강서)

价川驛大發展

장래가더욱유망

평남개천역(平南价川驛)은거금십오년전에도적막한한촌락이든바 점차신문명이 수입됨을딸하 일진월보의 긔세로 발전에발전을더하야 지금은 조선에서도 굴지하는 텰(鐵)의산디가되여 놉히가 꽃주하야 자못번창하야 지는고로 지금은권조선에 상업요디(要地)라 칭하는 안주(安州)에 비하여도 조곰도손색이 업서 실로평남에굴지하는 도시(都市)가된바 권근한 덕천(德川)、녕변(寧邊)、맹산(孟山)、순천(順川)、희천(熙川)등 여러고을에서 모이는물화가 거의이곳에 집산되는터에 또한개천의 행정긔관(行政機關)인군텽과 및경찰서까지도 전부이곳에 설치되엿슴으로 시장의 매매와 물화의부역은 날로더욱 복잡하야짐으로 각디의상업가들은경쟁하야가옥을건축하려하는터임으로 불과긔년동안에 수만을산하는대도시가되리라더라(개천)

휘파람

(尹相奎)의아들윤시현(時鉉)(一七)이란소년은 그부친의 돈을 가지고 도망하얏다더라

▲의주청성진(義州淸城鎭)에는 불과백여호밧게못되는한적은시가인데간판부재 여호밧게못되는 시가인데 간판부재 호나되고그다음은 아모관계가업는데 또근일에는 양주조합가업지되엿다나 이것이 청성(淸城)인지? 탁성(濁城)인지? 아마주성(酒城)이라고하는것이명실이상부할듯

各團體消息

◇蓮池靑年懇話發行 시내련지동(蓮池洞)에잇는 련지청년회(蓮池靑年會)에서는오래전부터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라고그관지련지(蓮池)를발간코자원고수습에 노력중이든바 모든준비를마치고 오일에원고납본을 하얏는데 주간은윤택수(尹澤秀)씨라한다

◇半島少年會懇親會 시내루하동(樓下洞)칠십번디 반도소년회에서는 칠일오후 한시부터루하동 신명학교(新明學校) 안에서간친회를 연다는데 일반회원은만히참석하야주기를바란다고

滿洲踏査(33)

李涵

一月十二日은 눈이부슬부슬오며바람은불지아니하엿다 우리는學校셔떠나 南으로十五里되는 義氣岡子의 韓人村에 잠간들럿다가 다시南으로十五里를가셔 蓁眞屯(中人은沙荒地라함)에오즉 同胞二十二戶가살며 水田五十晌을짓는데모다 同胞의所有地라한다 地租는每晌(每晌이二千坪)三石(每石二百四十斤)식 준다하며 水田一晌을 永買하는價格은 金貨七十五元이라한다 每晌에 稻子所出은 十二石假量이며 稻子一石價는八元이라하니 每晌에서當年所得金額이 九十六元인즉 永買한一晌價보다 二十一元이 발셔남은것이다 滿洲에셔 金錢이잇셔셔 土地를사면 이와가티 當年에 本金에三分利子를 合算안젓가지 엇는것이다 倫成中學校를 차저간즉이 學校 設立하고 校長으로잇스면셔學課時間外지보는 時堂呂滙先生이잇다 前日에 網纓縣草樹溝에서 八年만에 잠간만나보고또 몃날만에 다시보게된것은참으로반갑다 學制는四個年 卒業인데每日午前四時間(午前八時부터十二時까지)은學課를가르치고 午後에時間은勞働을하게한다 可謂耕讀兩全이라하겟스며 敎員은李元芳(兼學監) 李漢鳳(兼校監)康大鉉崔利鍵諸氏라한다 補習班은中學課以下에한班이잇스니이것은高等小學二年級程度나되게 가르친다는것이라한다 그學校事務室을들어가본즉 과연北滿에서도라단이며보던바로는 광장하다參考書類와 敎科書를만히싸아노앗고 文房諸具가매우整然하다참으로 最近理想을품은 時堂先生의耕讀이놉다옵다 그런데耕讀을兼하야하면서공부하는學生을불이冬期放學동안 學校의經費不足을 補充하기爲하야 各處로나가셔

一月十三日은 大雪이그쳐고 바람이약간분다 우리는 倫成中學校에서留하게되엿는데 一個月半前에 만히와서녹지못하고잇는 눈이二尺以上이되는데 이번에또큰눈이싸여서 멋날동안은道路의 通行이不便할것이다

이倫成中學校가잇는村에『盡美小學校』가또로잇스니 昨年에設立한것이라하며 現在學生은廿六名이오四學年制로高等科를畢業하면 또高等科二個年을치두어中學校에入學할資格이되게하는것이라한다 社長은朴貞景 校監은文鍾鎬 敎師는吳光鮮(兼學監)吳文泳氏라하며 經持費는地方의公同負擔이라한다

一月十四日은天氣가淸朗하다 沙荒地에서南으로 五里되는黃地岡子라는 村落에간즉 同胞三十九戶가잇는데 八年前에尹仁甫가처음水田을開拓하엿다하며現在의水田은一百五十晌(每晌二千坪)이며 地租는每晌에 一石으로부터二石 二石半 三石外지라는바 이水田地는全部同胞들이永買로所有權이잇는양이라한다

倍達小學校가잇는데學生은二十九名이며 五年前에 有志韓壽一金慶鎭諸氏가設立한것이라하며 校長은宋守一 校監은權重爽 學監는 高炳夏 敎師는 朱元 崔鋼彥諸氏이오學校의經費는地方住在同胞들이公同으로負擔하는것이라한다 우리는여긔에서밤을자게되엿다 전역에 一般同胞들이會集한뒤에 우리의前路生活에對한이약이를만히하엿다

一月十五日도天氣가조앗다우리는 荒地岡子에서떠나 北으로十五里되는 義氣岡子(前日나려갈때에들럿던곳)에到着하야 全泰鍊氏를차젓다 全泰鍊氏는天道敎地方宗理院의 宗理師라는바 三十一歲의靑年으로서此地方에 有力한듯하다

義氣岡子에는同胞二十戶가잇는데水田五十晌(每晌二千坪)을지으며 이水田은三年前에南在洙 安奎源諸氏가開拓한것이라는바 地租는每晌에三石식이며 每晌의所出은稻子十二石(每石二四〇斤)이라하며 每石價格은八元이라한다 그五十晌中에 二十晌은同胞들의永買한것이오三十은 中國人의것이라한다 義氣岡子에서東으로 二十里되는 義氣溝(의긔거우)에서 同胞二十五戶가살며 水田八十晌을짓는바距今五年前에 張世鎬 李鶴九 南氏가처음水田을開拓한것이라한다義氣溝에들러가보려다가 特別히觀察할만한것이업다함으로가지아니하엿다 우리는義氣岡子(의긔강즈)에서밤을자면서 一般同胞들을會集케하고 鄭潤氏가만흔이약이를하엿서 同胞들이매우깁버하며우리의過去가그러케놀납던것을못버놋기고 하루밤을쉬며이약이를하면조켓다한다

朝鮮日報社主催

京城市內朝鮮人商店看板懸賞投票用紙

看板이第一조흔商店	
投票者 住所	
氏名	

自二月一日 至二月十五日